

# 일본 낙농 근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 \*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진 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1. 서론

2010년 들어 일본 정부는 낙농을 비롯한 각종 축산 및 농업정책들의 체계를 전환하고자 하는 검토를 실시하였다. 낙농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낙농정책의 기초는 유지하지만, 정책 내부의 각 사업들이 속하는 대분류 사업의 명칭이 크게 변화되었다.

2010년 일본에서는 낙농 생산근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설정하기 전에는 일본의 낙농정책 중 경영안정정책으로는 낙농환경부담 경감지원사업,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 사업, 도부현 낙농긴급경영강화대책 사업,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낙농경영 안정대책 보완사업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사료수급정책으로 낙농 사료기반 확대추진 사업, 친환경사료 등 이용촉진사업, 청예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사업, 사료증산 수탁시스템사업,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사업, 미활용자원 사료화 촉진사업, 조사료 자급률 향상 종합촉진대책사업, 축산생산성향상 촉진사업,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 융통사업, 사료가격 상승 등 이해도 증진 사업 등이 있었으며, 생산성 향상정책으

\* 일본의 2010년 이전 낙농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일본의 낙농정책”, 2012 목장낙농경영 및 생산성 향상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충남대학교, 2012. 10.16을 참조(huhduk@krei.re.kr, 02-3299-4261).

로는 낙농도우미 이용확대 추진사업, 낙농생산기반 개선 지원 확대 사업,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 리스사업 등이 있었다. 한편 유통개선 정책으로는 광역 원유유통체계 확립사업, 유업재편정비 등 대책사업, 지정원유 생산자단체보급교부금 사업, 가공원료유 확보 특별사업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 및 사업들이 2010년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정책이 변경되면서, 다소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표 1 2010년 이전 일본의 낙농정책 구조

경영안정정책	사료수급정책	생산성향상정책	유통개선정책
낙농 환경부담 경감 지원 사업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	낙농도우미 이용확대 추진사업	광역 원유 유통체계 확립사업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 사업	에코피드 등 이용촉진사업	낙농생산기반 개선 지원 확대사업	유업 재편 정비 등 대책사업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 대책사업	청에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사업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리스사업	지정원유 생산자단체 보급 교부금 사업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사업	사료증산 수탁시스템사업		가공원료유 확보 특별사업
낙농경영안정대책 보완사업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사업		
	미활용자원 사료화 촉진사업		
	조사료 지급률 향상 종합촉진대책사업		
	축산생산성향상 촉진사업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 융통사업		
	사료가격 상승 등 이해도 증진사업		

본고에서는 2010년 검토·발표한 일본의 낙농 근대화를 위한 정책방향 검토의 내용과, 이에 따라 변경된 각 사업들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 때 과거 정책 사업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낙농가의 입장에서 각 농가의 목적에 따라 어떠한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

## 2. 일본의 낙농 생산 근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 2.1. 축산·낙농 소득보상제도 도입

소득보상제도의 도입은 의욕이 있는 낙농가가 창의적인 연구를 살린 각자의 경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현행 낙농의 가공 원료유 생산자 보조금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낙농생산 등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경영안정대책의 기능과 이들의 새로운 추진에 대한 실시 상황 등을 검토한 뒤, 새로운 모습과 도입 시기를 검토하였다.

### 2.2. 6차산업화 추진에 의한 지속가능한 낙농생산으로 전환

#### 2.2.1. 6차산업화 추진에 따른 낙농가 소득 향상

일본은 생산부터 가공·판매까지 포함하는 6차산업화 추진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정원유생산자단체 기능 강화, 낙농가의 다양한 생산형태를 배려한 유업체의 공장 재편 및 통합 등을 통해 원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정원유생산자단체의 원유 거래 등과 같은 상황을 검토하여, 생산자 스스로 가공이나 판매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낙농가의 창의성과 차별성을 살리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더불어 이들 계획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자급사료 이용확대, 사양관리기술 및 젖소생산성 향상, 낙농가의 규모 확대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2.2. 수요에 따른 생산 추진과 출구전략 구축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구성의 변화와 국민 건강지향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도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판매 및 출구전략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음용우유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수입 원료를 국산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요가 예측되는 품목의 확보와 수출을 위한 상대국 및 제품 생산을 중요시 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를 통해 원유와 우유,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자 및 유업체가 소비자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 치즈 소비량의 80% 이

상이 수입 치즈이며, 이 중 약 70%가 직접 소비용 내추럴 치즈이므로, 이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 2.2.3.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

일본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실태에 맞는 사양관리 지침을 공표하고, 이를 기초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동물복지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실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해 생산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동향 등을 검토하여 일본 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 2.2.4. 기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대책

앞서 언급한 2개 정책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시행하고 있다. 이들 정책의 방침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대책

정책 방침	주요 내용
낙농 생산에 있어서 다양한 경영의 육성, 확보	① 낙농생산에 있어서 다양한 경영의 확보 ② 낙농생산으로 신규 취업자 육성·확보 ③ 지원조직에 의한 기술·경영능력 향상 ④ 여성이 쉽게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와 고령자 능력활용
낙농경영에 있어서 비용절감	① 사양관리기술 등 고도화 및 자급사료중심의 급여체계로 전환 ② 도우미 등 지원조직 육성 ③ 규모 확대
가족개량 및 축산신기술 개발·보급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① 가족개량 추진 ② 우군검정 보급촉진 ③ 젖소의 연산성 등 생애생산성 향상 ④ 브라운스위스종 등 도입을 위한 조사시험과 품종 특성을 살린 개량추진 ⑤ 성판별정액 이용확대와 유전자해석기술을 활용한 능력평가법 실용화 등
가족위생대책 총실·강화 등	① 방역조치와 동물검역의 정확한 실시 등 ②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에 대응 ③ 가족전염병예방법 재검토를 포함한 관련 조치
축산물 고부가가치화·브랜드화	① 국산치즈의 고부가가치화 ② 유기농 등으로의 적합성에 대응한 다양한 유용종 활용 ③ 지역브랜드 확립 ④ 기능성 등 새로운 가치를 부가한 상품개발·보급
축산물 수출 촉진	① 수출대상국·지역 확대 ② 국산축산물 PR추진 ③ 국산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향상
가공·유통 합리화	① 집송유 및 유통 합리화 ② 6차산업화 등을 뒷받침하는 유통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 홈페이지(www.maff.go.jp).

## 2.3. 원경부하 경감에 기여하는 낙농산업 육성

일본의 낙농산업 정책은 자원순환형 낙농산업을 추진하면서 자급사료의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환경부하 경감 및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을 한 축으로 하고 있다. 농지와 미이용지의 유효활용을 위해 사료용 벼(벼발효 조사료, 사료용짚(Whole Crop Silage))생산용으로 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사료생산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축제휴에 의한 자원순환을 위해 초지기반 정비, 우량품종 개발 도입 등 효율적 생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방목에 의한 비용절감과 여유 창출 방안, 하천부지 등 미이용 자원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섬유질배합사료(Total Mixed Ration, TMR)센터 등의 사료생산 지원조직의 활용을 통해 사료생산 지원조직의 육성 및 고도화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스톡 포인트 정비에 의한 축산지대로 자국 조사료 광역 유통망 구축 및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국 사료 품질 향상을 위한 사료생산기술 개량과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 사료의 기능성 성분 활용 및 급여기술을 개량함으로써 자국 사료를 이용한 축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유통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사료 등의 새로운 사료자원의 이용을 확대하고 유통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퇴비의 자급사료 생산, 경축제휴 강화에 의한 퇴비 이용 촉진, 경종농가의 요구에 맞춘 퇴비 생산, 바이오매스의 적극적인 이·활용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가축분뇨 등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 악취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 및 수질오탁방지 대책, 악취방지 대책 등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 2.4. 소비자 욕구 대응 및 축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 확보

일본 정부는 축산물에 관한 안전과 신뢰를 위한 노력으로 사료,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동물수의사 등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소이력추적,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및 가축의 위생관리 향상 등을 통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 현상, 소비자의 건강 지향 욕구 등 소비자의 실수요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한 실제 필요품 생산으로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치즈 제조 기술자 육성 등과 같은 인재 육성과, 지산지소운동의 추진 등은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고려한 축산물 소비확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자급사료 기반에 입각하여 자국 축산의 의의를 강조하여 축산과 축산물에 대

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 낙농교육 농장과 같은 체험활동을 비롯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교류하는 산지교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교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먹거리와 생명, 마음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농업생산 현장 및 축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과 각종 정보 교류회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정보에는 가축위생과 생산단계에서 이용되는 기술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 3. 원유 생산량 및 젓소 사육두수의 지역별 전망

#### 3.1. 원유의 수요 전망

일본은 2020년 자국의 우유·유제품 소비량을 1,123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음용유 수요량은 지역마다 인구 예측과 다른 음료와의 대체 효과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유제품용 수요량은 일본의 내추럴 치즈 등의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3 일본의 장기 원유 수요량 전망

음용 우유(지역별 전국 합계)	유제품용(전국 합계)	자가소비 등 수요량(전국 합계)	합계
404만 톤	390만 톤	6만 톤	800만 톤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3.2. 원유의 지역별 생산량 전망

원유의 지역별 생산수량 전망은 최근의 낙농경영 동향, 자급사료 기반의 지역차이, 젓소생산성향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표 4 참조>.

표 4 일본 원유의 지역별 생산량 전망

단위: 만 톤

지역명	지역에 속하는 도도부현명	현재(2008년)	전망(2020)
홋카이도	홋카이도	390.9	402.4 ~ 444.7
토호쿠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67.8	58.8 ~ 65.0
간토	이바라기현, 토지키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144.1	131.2 ~ 145.0
호쿠리쿠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12.1	9.6 ~ 10.6
토카이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32.9	28.6 ~ 31.6
긴키	사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23.2	18.4 ~ 20.3
츄코쿠·시코쿠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토쿠시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48.5	40.6 ~ 44.9
큐슈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카고시마현, 오키나와현	74.9	70.1 ~ 77.5
전국 계		795	8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3.3. 젓소의 지역별 사육두수 전망

젓소의 지역별 사양두수 전망은 낙농가의 지역적 동향, 자급사료 기반의 지역차이, 젓소의 생산성향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표 5>와 같이 전망하였다.

표 5 일본 젓소의 지역별 사육두수 전망

단위: 만 두

지역명	지역에 속하는 도도부현명	현재(2008년)	전망(2020년)
홋카이도	홋카이도	82.3	74.1 ~ 81.9
토호쿠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12.5	9.2 ~ 10.2
간토	이바라기현, 토지키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23.6	18.6 ~ 20.6
호쿠리쿠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1.9	1.3 ~ 1.4
토카이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4.9	3.7 ~ 4.1
긴키	사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3.7	2.6 ~ 2.9
츄코쿠·시코쿠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토쿠시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8.1	5.8 ~ 6.1
큐슈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카고시마현, 오키나와현	13.0	10.2 ~ 11.3
전국 계		150	132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4. 일본 낙농경영의 기본적 지표

### 4.1. 기본적 고려사항

일본 정부는 경영지표에 대해 앞서 소개한 ‘낙농생산의 근대화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 일정 입지조건 하에서 낙농가의 다양한 경영 방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낙농가의 사양형태와 사료생산체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경영 지표로 제시하고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규모 확대에 의한 경영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가축개량과 사양관리기술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6차산업화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 지역의 사료자원을 포함한 자국 사료의 적극적인 활용, 도우미·코디네이터·TMR 센터 등 지원조직을 활용한 방안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지조건 등 제약이 큰 지역은 경영규모가 클수록 보통 경영 내 사료자급률이 떨어지고, 지역 내의 사료자원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 4.2. 낙농경영 유형 설정 시 고려사항

낙농경영에 대해서는 토지조건 제약이 적은 지역과 큰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지역마다 별도로 지침을 설정하였다. 낙농가의 유형은 현재의 평균적인 사양두수로 경영하는 가족경영 유형, 가족경영으로 밀도가 높고 파이프라인 방식에 의해 다두사양을 하는 유형, 법인경영으로 프리스틀 밀킹팔러(Free stall Milking Parlor)<sup>1)</sup> 방식을 활용하는 대규모경영의 유형,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가족경영으로 낙농경영과 동시에 치즈가공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 5. 집유와 유업 합리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5.1. 원유의 계획적·안정적 공급 및 집송유 등의 합리화

일본 낙농산업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수급전망을 통한 원유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중장기적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였다. 집송유가 아직까지 완전히 지정 원

1) 프리스틀(free stall)이란 개방형 우사 등에 설치하여 커다란 방을 구획하여 만든 작은방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사료 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을 말함(농촌진흥청). 밀킹팔러는 착유장, 채유장 또는 착유시설을 뜻함.



유 생산자 단체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중장기적인 수급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생산의 모습과 수급 조정방법 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일본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단위농협 등의 재편정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정 원유 생산자단체에 의한 저유시설 재편정비, 집송유 업무의 지정 원유 생산자단체로의 집약 및 일원화 추진 등 지정 원유 생산자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원유 유통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낙농가부터 유업공장까지의 집송유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0년까지 원유 유통비용을 현재의 70~80% 수준까지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원유 유통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생산자가 농업협동조합연합회·단위농협 등을 통해 지정 원유 생산자단체에 원유 판매를 위탁하는 현재의 거래방법을 합리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낙농산업의 6차 산업화 추진 및 원유 수탁 판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 5.2. 유업계 압리와

일본의 유업체가 최근 경제정세 악화 등으로 재편에 소요되는 새로운 투자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어, 합리화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규모가 작은 중소유업(1일 원유처리량 2~10톤 정도)에서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폐업하는 유업자도 존재하고 있으며, 우유·유제품 제조판매 비용에 대해서는 유업체 공장 재편·합리화에 의한 생산체제 정비와 가동률 향상 등이 진전되지 않아, 비용절감도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업체의 계획적인 재편·합리화에 의해 제조판매 비용 절감을 개선하기로 하며, 유업체의 우유·유제품 관련 제조판매 비용 절감과 유업체 수를 감축하는데 정책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표 6 제조판매 비용의 목표(1일 원유 처리량 2톤 이상의 공장)

구분	목표(2020년)
원료용 버터	현재의 80% 수준
탈지 분유	
음용 우유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2008년 제조판매 경비는 원료용 버터 175엔/kg 정도, 탈지분유 2,358엔/25kg 정도, 음용우유 46엔/ℓ 정도(원료유대, 일반관리비 및 지불이지는 제외됨. 농림수산성생산국 축산부우유유제품과조사로 추계함)였다.

표 7 우유·유제품 공장수 목표(1일 원유처리량 2톤 이상)

구분	현재(2020년)	목표(2020년)
유제품 공장 수	42	현재의 80~90% 정도
음용우유 공장 수	239	현재의 80% 정도
전체 공장 수	281	현재의 80% 정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5.3. 우유·유제품의 안전성 확보

우유·유제품 제조공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인증 공장 수는 유업체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HACCP 관련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우유·유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안전성에 대해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유업체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하므로, 음용우유공장 및 탈지분유 제조를 하는 유업 공장에 대해 HACCP 인증유업공장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HACCP 방법을 도입한 고도의 위생관리수준을 준비하는 유업공장 정비를 추진하는 계획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음용우유 공장수에서 차지하는 HACCP 인증공장수는(1일 원유처리량 2톤 이상의 공장) 현재 65%에서 2020년 9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탈지분유를 제조하는 유업체에서 차지하는 HACCP 인증업체는(1일 원유처리량 20톤 이상의 공장) 2020년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6. 일본의 목적별 낙농관련 정책 사업 현황

### 6.1. 규모 확대

일본의 낙농산업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 목적은 크게 공동 이용 프리스틀 우사와 밀킹팔러 정비, 이농농장 활용 규모 확대, 젖소 후보우 도입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

---

선 공동 이용 프리스틀우사와 밀킹팔러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일반예산)’ 사업과 ‘농업근대화 자금’, ‘정책공고 자금’과 같은 융자제도가 있다. 협업법인사업 개시에 따른 공동이용 축사 시설 정비에 지원하고, 농협 등이 실시하는 시설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사업’은 이농농장 활용 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공사 등이 농장을 매입 또는 차입하여 해당 농장에 가축을 입식하고, 축사 등을 개보수한 후 규모를 확대하려는 낙농가에게 대여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젖소 후보우 도입을 위해서 젖소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농업근대화 자금’, ‘정책공고 자금’, ‘농업개발 자금’ 등과 같은 융자제도가 있다.

## 6.2. 신규 취농 및 경영 개선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과 같이 축산경영에 신규 취농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과 기존의 경영을 계승하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경영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는 신규 취농자가 필요한 기계 등을 임대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농축산업 기계 등 리스 지원 사업(축산 신규 취농지원형)’을 비롯하여, ‘신규취농자 확보사업’과 같이 취농 전 연수기간 및 취농 직후 소득 확보를 위해 취농자를 지원하고, 법인이 신규 취업자에게 실시하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 또한, 농업대학교 및 선진농가에서의 연수비용, 취농을 위한 사전 준비비용, 시설 설치 및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는 ‘취농지원자금’ 제도가 있다.

## 6.3. 사료기반 정비 및 사급사료 증산 도모

사료 관련 정책사업의 목적은 ① 사료생산을 위한 시설기계 정비, ② 생산성이 높은 사료생산 계획, ③ 초지조성, 정비·개발 실시, ④ 벼발효조사료(벼WCS)를 생산, 이용, ⑤ 미이용 자원의 사료 이용, ⑥ 사료용 쌀 생산 및 사용, ⑦ 논을 유효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 ⑧ 조사료 광역유통 도모 등 8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및 특징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사료기반 정비 및 자급사료 증산 도모를 위한 정책사업

구체적인 목적	대응 사업	사업의 특징
사료생산을 위한 시설기계 정비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효율적인 자급사료 생산을 위해 시설의 정비를 지원 혼합사료제조·공급시설, 사료작물수확제조저장시설 등의 정비에 지원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산지 관계자가 조직한 협의회에 의해 책정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TMR센터나 광역유통거점 정비, 사료생산조직 경영의 고도화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정비, 농업기계 리스도입에 지원
생산성이 높은 사료 생산 계획	(일반예산) 초지생산성향상대책사업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초지를 높은 생산성 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
초지조성, 정비·개량 실시	(일반예산(공공) 호별소득보상실시원활화기반정비 사업 중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대형기계화체계에 대응하여 사료생산기반정비를 피하기 위해 축산주산지에서 초지정비, 초지 이용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지원
	특정지역진흥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도세(오키나와, 온비, 하나시마) 지역에서 초지 정비, 초지이용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지원
사료생산을 위한 시설기계 정비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효율적인 자급사료 생산을 위해 시설의 정비를 지원 혼합사료제조·공급시설, 사료작물수확제조저장시설 등의 정비에 지원
산지활성화총합대책 사업	산지 관계자가 조직한 협의회에 의해 책정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TMR센터나 광역유통거점 정비, 사료생산조직 경영의 고도화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정비, 농업기계 리스도입에 지원	
생산성이 높은 사료 생산 계획	(일반예산) 초지생산성향상대책사업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초지를 높은 생산성 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
	(일반예산(공공) 호별소득보상실시원활화기반정비 사업 중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대형기계화체계에 대응하여 사료생산기반정비를 피하기 위해 축산주산지에서 초지정비, 초지 이용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지원
	특정지역진흥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도세(오키나와, 온비, 하나시마) 지역에서 초지 정비, 초지이용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지원
초지조성, 정비·개량 실시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 중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지방의 재량으로 농산어촌지역 사료지급을 향상과 관련된 목표를 정해 실시하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초지의 정비, 초지 이용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지원
	지역자주전략교부금 중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지방의 재량으로 지역영농 계속에 필요한 사료생산과 관련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초지정비, 초지이용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지원
	오키나와진흥공공투자교부금 중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신규)	오키나와현 재량으로 지역영농 계속에 필요한 사료생산과 관련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초지정비, 초지이용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지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표 8 사료기반 정비 및 자급사료 증산 도모를 위한 정책사업(계속)

구체적인 목적	대응 사업	사업의 특징
초지조성 정비·개량 실시	(부흥재원, 특별회계) 농산어촌지역 부흥기반종합정비사업 중 초지축산 기반정비사업(동일본대지진재해부흥 교부금)	동일본대지진재해부흥특별구역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농의 계속에 필요한 새로생산과 관련된 계획을 지원하 기 위해, 초지정비, 초지이용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지원
	(일반예산, 비공공) 농업체질강화기 반정비축진사업(농촌진흥국 집행)	농용지 구획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서, 농용지 정비를 세부적으로 실시
	(용자제도) 농업근대화자금, 정책금 융공고	채초방목지를 벌벌 때 필요한 자금, 목야 개량,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채초방목지 배수개량, 토양개량 등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비발효조사료 (벼WCS)를 생산, 이용	(일반예산) 논활용소득보상교부금	실수요재(축산농가 등)과의 이용 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논에서 비발효조사료용 벼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벼 WCS용 벼의 작부면적에 따라 교부금 지원
	농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산지수익력 향상지원사업)	산지의 관계자가 조직한 협의회에 의해 책정된 프로그램 에 기초하여, 고품질화기술 등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공 동이용 시설 정비, 농업기계 리스 도입에 지원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중 농축산 업기계리사지원사업(산지활성화형)	산지의 관계자가 조직한 협의회에 의해 책정된 프로그램 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농업기계 리스 도입에 지원
미이용 자원의 사료 이용	[일반예산] 에코피드 긴급 증산 대책 사업	지역 TMR 센터 등이 지역 식품부산물과 사료작물을 이용 하여 혼합사료를 생산하는 계획이나 식품산업 등과의 매 칭 등에 지원
사료용 쌀 생산 및 사용	[일반예산] 논활용 소득 보상 지원금	수요재(축산농가 등)와 이용공급 계획에 기초하여 논 사료 용 쌀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사료용 쌀 재배면적에 지원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주식용 쌀과의 구분관리에 필요한 건조 조정시설의 정비 와 사료용 쌀의 보관 조정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의 정 비에 지원
	(일반예산)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산지의 관계자가 조직한 협의회에 의해 책정된 프로그램 에 기초하여, 고품질화기술 등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공 동이용 시설 정비, 농업기계 리스 도입에 지원
논을 유효 활용하 여 조사료 생산	(일반예산) 논활용 소득보상교부금	실수요재(축산농가 등)와의 이용 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논에서 사료작물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사료작물의 작 부면적에 따라 교부금 지원
조사료 광역유통 도모	(일반예산)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사료생산거점육성지구사업)	지역의 관계자가 조직한 협의회에 의해 책정된 프로그램 에 기초하여, 국산 조사료 광역유통체계 정비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 정비, 농업기계 리스 도입에 지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6.4. 비용절감 계획 이행

일본의 비용절감 계획 실행을 위한 관련 정책 사업으로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낙농경영안정대책보완사업’, ‘산지활성화 종합 대책사업’, ‘사료증산 종합 대책사업’,

‘논 활용 소득보상 교부금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비용절감 계획 실행을 위한 정책사업

구체적인 목적	대응 사업	사업의 특징
포유 로봇 도입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공동이용 축사와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포유로봇을 활용한 초조기이유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 지원
경작포기지를 이용한 방목 실시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경사지 등을 제경법 등에 의해 불경운으로 방목지로 활용하기 위해 목책이나 종자대 등의 정비를 실시할 경우 지원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중 지급력 향상중점지원(사료생산거점육성형)	방목 확대 등에 의해 사료생산거점 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러한 계획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정비에 대해 지원
포유 로봇 도입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공동이용 축사와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포유로봇을 활용한 초조기이유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 지원
경작포기지를 이용한 방목 실시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경사지 등을 제경법 등에 의해 불경운으로 방목지로 활용하기 위해 목책이나 종자대 등의 정비를 실시할 경우 지원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중 지급력 향상중점지원(사료생산거점육성형)	방목 확대 등에 의해 사료생산거점 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러한 계획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정비에 대해 지원
논 방목 실시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전기목책 등 정비에 지원
	논활용 소득보상교부금 (경축연계지원)	실수요자(축산농가 등)와의 이용계약에 기초하여 논에 사료작물을 생산하여 방목을 실시하는 경우, 논방목면적에 따라 교부금 지원
연결체를 활용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사료생산작업 청부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대해 지원
	사료증산종합대책사업	연결체 육성을 위해 새로 개시하는 작업수탁에 대해 개시 후 3년간 이내에 한해 작업수탁면적에 따라 지원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산지의 관계자가 조직한 협의회에 의해 책정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사료생산수탁조직의 경영 고도화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정비, 농업기계 리스도입에 지원
헬퍼 활용	(축산사업) 낙농경영안정대책보완사업 중 낙농경영안정화지원 헬퍼사업	상병시 헬퍼 이용 등에 대해 지원
공공목장 이용	(일반예산)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중 지급력향상중점지원	공공목장 등을 활용한 방목의 확대 등에 의한 사료생산거점 형성하는 계획을 지원
생산성향상을 꾀하기 위해 기계 등을 도입	(일반예산)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산지수익력 향상지원사업)	산지의 관계자가 조직한 협의회에 의해 책정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고품질화 기술 등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정비, 농업기계 리스 도입에 지원
외부화 위한 공동이용 축사 정비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소의 포육육성을 실시하기 위한 공동이용축사, 방목이용시설 등의 정비에 지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6.5. 축산물 생산부터 가공까지의 정비

축산물 가공·판매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생산자의 가공·판매를 위해 공동 축산물 시설의 정비에 지원하는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사업과 6차산업화 법 등에 기초하여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가공·판매 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 ‘6차산업화 추진 정비 사업’이 있다. 용자제도로는 ‘농업 근대화 자금’, ‘정책공고 자금’, ‘농업개발 자금’ 등이 있으며, 이들은 농축산물의 수요를 개척하기 위해 새로운 농축산물 가공품 등의 조사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해주는 제도이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으로 축산물 수급 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및 이에 수반된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산지활성화 종합 대책 사업’ 중 ‘농업소득 향상 신분야 지원 지구 추진사업’이 있다. 이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된 종합생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상품 수급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에 따른 시설 정비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본 내 판로 개척 및 신상품 개발 추진은 ‘6차산업 종합 추진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 6.6. 젓소능력양상, 신기술 도입을 도모

젓소개량을 위한 사양관리, 체형 데이터 수집 및 다양한 품종(홀스타인종 외)의 수정란 도입에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낙농추진사업(가축개발대책추진)’을 비롯하여, 우군 검정 조합 등의 계획에 기초하여 순단백질 함량이나 BCS 수집 및 활용, 원유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지도에 지원하기 위한 ‘낙농경영안정 대책 보완사업(우군 검정 시스템 고도화 지원 사업)’이 있다. 또한, ‘다양한 축산·낙농추진사업(가축개발대책추진)’을 통해서 농협 등이 구제역 발생 농가 또는 동일본 지진재해 피해지역에서 가축을 잃은 농가에 대해 번식용 가축(젓소)을 빌리는 경우, 번식용 가축 구입경비 일부를 지원<sup>2)</sup>해주고 있다.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사업에서는 수정란 공급시설 정비에 지원함으로써 수정란 이식관계의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 6.7. 원유수급 안정, 유통비용 절감, 유업계 압리화 도모

원유수급 안정 및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치즈용 원유에 대해 조성금을 지원하고 지정 원유생산자 단체가 유제품을 위탁·제조하는 것을 지원하는 ‘치즈용 원유 공급안정 대책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원유수급안정화방법 개발,

2) 단, 구입두수는 재해입기 전 사육두수와 현재 사육두수 차로 한정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가공원료유 등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사업’ 등이 있다. 이들은 원유수급의 중장기적인 예측 모델을 작성하는데 지원되며, 가공원료유 또는 치즈용 원유가격이 보전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생산자에게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지활성화 종합 대책사업’ 중 ‘유업 재편정비 촉진사업’은 유업시설의 재편정비와 대형 저유시설 정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원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사업이다. 유업체 시설 정비에 필요한 자금 융자는 ‘정책공고 자금’ 융자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으로 학교급식우유 공급, 학교급식으로 요구르트 등 제공, 보육소 등에서 신규 음용실시, 저온살균 우유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데 지원하는 ‘학교급식용 우유 등 공급추진사업’은 우유·유제품의 소비확대 도모를 위한 정책 사업이다.

### 6.8.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 자금 활용

경영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으로는 ‘농업근대화 자금’, ‘정책공고 자금’, ‘농업경영 개선 촉진 자금(슈퍼 S자금)’, ‘농업개량 자금’, ‘농림어업 안전망 자금’, ‘대가축 양돈 특별자금 융통사업’, ‘농업경영 부담 경감 지원 자금’, ‘가축질병 경영유지 자금’이 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의 목적 및 특징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 자금 활용 정책사업

구체적인 목적	대응 사업	사업의 특징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 차입	[융자제도] 농업근대화 자금, 정책 공고 자금	농지와 시설의 취득 개량 조성 가축의 구입,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안정적 경영을 위한 단기 운전 자금 차입	[융자제도] 농업경영 개선 촉진 자금(슈퍼 S자금)	인정 농업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개선 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운전자금(사료비, 가축비 융자)
타 축종 사육농가 신규로 낙농 경영에 참가	[융자제도] 농업개량자금	신규로 낙농경영에 진입할 경우 농지와 시설의 개량, 취득, 조성, 가축 구입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규 생산방식, 새로운 가공사업 추진	[융자제도] 농업개량자금	비용 절감에 필요한 선구적인 기술이나 자가 생산한 축산물의 가공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자재가격 폭등 등 긴급 운전자금 차입	[융자제도] 농림어업안전망 자금	사회적, 경제적인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융자
부채 전환	[촉진사업] 대가축·양돈특별 자금융통사업	상황이 곤란한 부채의 차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통
	[융자제도] 농업경영부담 경감 지원자금, 정책공고자금	부채 상황이 곤란하게 된 농업자에 대해 그 상환부담 경감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 융통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영 악화 개선	[촉진사업] 가축질병 경영유지 자금	BSE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에 의해 피해를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저리 자금 융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경영 중단 후 경영재개를 위한 자금 차입	[융자제도] 정책공고자금	재해 등의 발생에 의해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 저리 자금 융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6.9. 환경대책 추진

환경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목적은 ① 가축배설물 처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계·시설 정비, ② 환경과 조화된 낙농경영 추진, ③ 축산 주변 환경 개선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된 사업 및 특징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 자금 활용 정책사업

구체적인 목적	대응 사업	사업의 특징
가축배설물 처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계·시설 정비	[일반예산] 신지활성화 종합대책 사업 중 농지 수익력 향상 지원사업(지역 바이오매스 지원 지구 추진 사업)	정책적 금융 지원을 이용하여 퇴비화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 남은 용자금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일반예산] 산지 재상관련 시설 긴급 정비사업	이상기후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화 시설 등의 정비에 지원
	[일반예산(공공)] 지역 자주전략 교부금 중 축산환경 종합 정비사업	1 지역영동 계속에 필요한 가축배설물 처리를 위해 초지의 정비, 초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지원 2 노후화된 시설의 재정비 비용을 절약하고 내구연수 연장을 도모하기 위해 초지 정비와 더불어 실시하는 퇴비센터의 진흥 보존 대책에 지원
	[일반예산] 오키나와 지능 공공 투자 교부금 중 축산환경 종합 정비사업 (신규)	1 오키나와 현 재량으로 지역영농 계속에 필요한 가축배설물 처리를 위해 초지의 정비, 초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지원 2 노후화된 시설의 재정비 비용을 절약하고 내구연수 연장을 도모하기 위해 초지 정비와 더불어 실시하는 퇴비센터의 진흥 보존 대책에 지원
	[부흥재원(특별회계)] 농산어촌 지역 부흥 기반 종합 정비사업 중 축산환경 종합 정비사업(동일본 대지진피해 부흥 지원금, 신규)	동일본 대지진피해 부흥 특별 구역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축배설물 처리를 위한 초지의 정비, 초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지원
	[축산진흥사업] 축산고도화 지원 리스사업 중 퇴비 조정, 보관 시설 리스사업	경축연계에 의한 퇴비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퇴비의 조정, 보관에 필요한 시설 등에 필요한 리스 등의 일부 지원
	[축산진흥사업] 축산고도화 지원 리스사업 중 축산환경정비 리스사업	축산환경정비에 필요한 시설 등을 리스
	[용자제도] 축산경영 환경 조화 추진 자금, 농업근대화 자금, 정책 공고자금	퇴비화 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자금 용자
환경과 조화된 낙농경영 추진	(일반예산) 낙농환경부하경감지원사업(신규)	가축배설물 적정환원에 필요한 사료작부지를 일정면적 이상 확보하는 낙농가가 환경부하경감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사료작부면적에 따라 장려금 지원
축산 주변 환경 개선	[일반예산] 강한농업 만들기 교부금, 지역 자주 전략 교부금 또는 오키나와 지능 공공 지능 투자 교부금 중 산진경쟁력 강화 대책사업	축산기인 배수와 악취에 따른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정화처리시설이나 탈취시설 정비에 지원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www.maff.go.jp)

### 6.10. 위생대책 추진

위생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 사업은 크게 ① 요네병<sup>3)</sup> 청정화 추진, ② 흡혈곤충 매개 질병 등 발생 예방, ③ 농장에서 발생하는 만성 질병 등의 청정화 및 예방 추진, ④ 구제역 등 발생 대비의 4가지 목적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된 사업 및 특징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 자금 활용 정책사업

구체적인 목적	대응 사업	사업의 특징
요네병 청정화 추진	(일반예산) 가축생산농장청정화 지원대책사업	요네병의 자주검사 및 검사양성 소 등의 자율적 도태 추진에 지원 요네병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강습회 개최
흡혈곤충 매개 질병 등 발생 예방	(일반예산) 가축생산농장청정화 지원대책사업	대상질병 발생 지역에서 조직적인 백신접종에 대해 지원
농장에서 발생하는 만성 질병 등의 청정화 및 예방 추진	[일반예산] 소비·안전대책 교부금(소프트)	1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질병예방 매뉴얼을 작성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강습회, 위생검사, 모델 농장 추진에 지원 2 만성 질병의 청정화 시범 추진에 지원 3 농장에서의 HACCP 시범 추진에 지원 4 전염성 질병의 청정화, 예방에 필요한 자재(소독 장치, 새 방지 그물 등)의 구입을 지원
구제역 등 발생 대비	[축산진흥사업] 가축방역 호조기금(계와 유사) 지원 사업	생산자 스스로 적립하여 전염성 질병(구제역, 우역, 우폐역 등) 발생시 손해를 호조(상호조성)로 보상하는 계획에 지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7. 시사점

앞서 일본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낙농산업 정책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정책의 소통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생산자 단체 등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정책의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련 기관들을 정책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정책의 지원 사항을 농가가 목적에 따라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국민)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낙농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모두가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생산자

3) 파라결핵균(Mycobacterium paratuberculosis)이 소, 면양, 산양 등에 경구 감염되어 저항성이 저하될 때에 발병하며 심한 지속적인 설사와 여립을 주증상으로 함(농촌진흥청).

---

중심의 정책이 아닌 6차 산업화와 같이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낙농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다. 체계적인 도우미 육성 및 보험 활용 등을 통해 낙농인을 안정적인 직업인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또한, 과거 가격지지제도에서 소득보상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낙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우유 수요 침체 시 세이프티 발동을 위한 대책도 마련함으로써 낙농인이 직업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낙농가의 경영 계승, 즉 미래를 위한 후계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정책의 집행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정책 발현 시 충분한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충분한 기간을 숙고한 뒤 정책의 기초를 전환하고 있다. 보조금 산정 공식을 공개하여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농가 차원의 지원보다는 조직 또는 그룹 단위의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유업체 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활발한 유업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낙농산업을 유도하면서 환경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료작물 작부면적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친환경 축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이다.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립금을 1차 도도부현과 농가 간 기금, 2차로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차적 지원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최근 사료가격 인상과 원유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낙농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젖소의 신체충실지수(Body Condition Score, BCS)를 이용한 생산성 제고, 축산기자재 리스협회를 통한 리스사업 적극 이용 등은 낙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다. 이와 더불어,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농산부산물, 식품부산물 등 미 이용 자원을 사료로 이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료용 쌀을 재배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래 성장이 주목되는 가공용 원유, 특히 치즈용 원유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모든 노력과 정책의 밑바탕에는 철저한 낙농 위생대책을 통한 식품안전이 바탕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허 덕, 2012. 10.16, “일본의 낙농정책”, 2012 목장낙농경영 및 생산성 향상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충남대학교.

### 참고사이트

일본 농림수산업성 ([www.maff.go.jp](http://www.maff.go.jp))